

철학과에서의 한 해를 돌아보며

16학번 부수성

대학교에 합격하고 철학과 OT(orientation)를 통해 동기들을 알게 되었으며 철학과 집행부가 기획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집행부에 속한 여러 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철학과 MT(membership training)를 통해 집행부에 속해있는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타 여러 선배님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진양체전을 통한 저 자신의 책임감과 여러 학우분과의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. 2학기에 들어서면서 ‘미네르바의 향연’이라는 과 축제에서 연극과 ‘필드’라는 과 밴드를 맞게 되었는데 학기 중 연습에도 불구하고 학우 분들의 참여도가 높아 과 축제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드에서 피아노를 맞게 되었지만 제가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이라 고민하던 참에 분과장을 맞게 된 선배님과 학회장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축제에서 자신이 맡게 된 악보를 완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1년 동안 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선배님과 동기들이랑 친해지며 과에 대한 애정이 생겨날 수 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철학과에 들어온 걸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“다른 과에 지원했어도 이렇게 됐을까?”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철학과에 들어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철학과라는 곳에서 올해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든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기를 희망하고 철학과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려 합니다. 2016년 정말 재미있었던 해였고 철학과에서의 한 해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.